

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

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(2월 2~3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베트남 2월 경제 동향

- '26년 1월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치액 USD 25.8억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.58% 하락
 - 정부는 작년 1월 FDI 유치액이 이례적으로 많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일 뿐, 추세 변화는 아니라고 설명
- '26년 1월 베트남 산업생산지수(IPP) 전년 동월 대비 21.5% 증가
 - 이는 연중 최대 명절인 뗏(설)이 작년 1월에 포함됐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증가율은 주로 주문량 증가와 뗏 연휴가 겹쳤던 작년 1월에 비해 올해 1월의 근무일수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했으며, 전월 대비로는 0.2% 감소
- '26년 1월 베트남 PMI 지수 52.5로 7개월 연속 기준치 상회
 - S&P Global의 1월 베트남 제조업 PMI(구매관리자지수) 보고서에 따르면, 1월 PMI는 52.5로 전월 대비 0.5포인트 하락했으나, 7개월 연속 기준치인 50을 웃돌며 경기 확장 국면을 지속
 - PMI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기업 구매담당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업계동향 지표로 50 미만은 경기 위축, 50 이상은 경기 확장을 의미
- 호치민시, 10억달러 규모 디지털자산 투자펀드 조성 추진
 - 호치민시국제금융센터(HIFC)는 FPT-비나캐피탈-비엠타이(Viet Thai) 컨소시엄 및 글로벌온체인경제연합과 호치민시의 디지털 자산 투자펀드 연구·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
 - HIFC는 해당 투자펀드를 통해 시장 구축을 위해 최대 USD 10억 규모의 자본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며, 디지털 자산 투자펀드는 암호화폐 거래소,블록체인 기반 즉시 결제, 은행 연동 전자지갑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나설 예정

② 베트남 정부 동향 및 정책

- 베트남 정부 2030년 사회주택 100만호 목표, 예정보다 2년 앞당겨 달성 전망
 - 베트남은 지난 '23년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'30년까지 전국에 사회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으며, 건설부는 '25년까지 약 10만 호 공급을 단기적 목표로 설정했으나, 실제 공급량은 10만2,700여 호로 사업 시행 이래 최고치를 기록
 - '25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사회주택 개발사업은 모두 698개로 완공 시 공급량은 65만7,000호를 넘어서는 규모
 - 건설부는 앞으로도 사회주택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, 기반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질 사회주택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중앙 정부는 '2021~2030년 저소득층 및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사회주택 100만 호 이상 건설사업'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절차적 장애물 제거와 토지 배분, 신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들이 사회주택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
- 베트남, 철강산업 자립도 강화 추진
 - 베트남 정부가 자동차와 고속철도,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, 국방안보 분야에 필요한 특수강 생산 역량을 확대해 철강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국가 전략을 확정
 - 현재 베트남 철강 산업은 일반 건설용 강재는 공급 과잉 상태인 반면 자동차·기계·운송 분야에 쓰이는 고급 특수강은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, 정부는 건설용 강재 생산 비중을 줄이는 대신, 합금강·공구강·특수 제조용 강재 등 고품질 제품 비중을 확대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한다는 방침
 - 2030년까지 국내 철강 수요의 80~85%를 자체 공급 목표 설정 및 2030~2035년 기간에는 국내 공급 비중을 85~90%까지 높이고, 자동차·조선·기계·에너지 등 핵심 산업을 위한 고부가가치 철강 생산에 집중할 계획

3 베트남 기타 동향

- 호치민시, 베트남국제금융센터 개소
 - 베트남 최초의 국제금융센터인 호치민시베트남국제금융센터(VIFC-HCMC) 개소 및 공식 운영 시작
 - 베트남 국회는 '25년 6월 남부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과 중부 연안 도시 다낭에 각각 거점을 둔 1센터·2거점 모델의 베트남 국제금융센터 설립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
 - 이 중 호치민시 사무소는 항공금융센터, 해운금융센터, 상품거래소, 첨단기술결제센터 등 전략적 핵심 축을 기반으로 한 모델로 운영되며, 이 외 핀테크, 디지털 बैं킹 생태계 구축 등이 과제로 제시
 - 호치민 국제금융센터는 공식 개소 전 약 한 달간의 시범 운영 중 USD 61억 규모 자본을 유치 확약을 통해 항공금융센터와 해운금융센터 조성 및 스마트시티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USD 20억 유치, 블록체인·토큰화 자산·디지털 자산 등의 온체인 경제를 위한 USD 10억 규모 펀드를 설립하는 등 초기 성과를 냄
- 또 럽 서기장, 호치민↔룽탄공항 이동시간 30분으로 단축 지시
 - 당서기장은 현재 2시간 가량 소요되는 호치민시와 룽탄신공항 간 이동 시간을 30분 내외로 단축할 수 있는 종합 교통 대책 마련 지시
 - 오는 6월 개항 예정인 룽탄국제공항은 베트남 최대 규모의 공항이나, 호치민시와의 연결은 도로 교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중 핵심 노선인 호치민-룽탄-저우저이 고속도로 역시 40km 구간에 걸쳐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고, 도로 확장은 물론 철도 연결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
- 호치민시, 도심 홍수예방을 위한 400톤급 방조제 가동
 - 호치민시의 VND 10조(USD 3.8억) 규모 6대 조수차단벽 사업에 포함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벵응에 방조제 수문이 가동되며 수년간 중단됐던 사업이 공식 재개
 - 벵응에 방조제는 벵응에 운하에 위치한 개폐형 방재시설로, 기후 변화 문제와 조수 역류에 따른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'16년 PPP-BT 방식으로 1단계 사업 착공

□ 일반 프로젝트 동향

① (베트남) 호치민시 빈끄어이-탄다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호치민시 인민위원회
- (사 업 비) VND 98.7조 (USD 37.4억)
- (사업내용) 총 면적 423.6ha(아파트, 빌라, 사회주택 등 총 25,526세대 공급 예정)
- (추진계획) 미정

- (주요사항) 빈끄어이-탄다 반도는 사이공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호치민시 중심부에서 약 6.5km 떨어진 곳에 위치
 - 썬그룹 주식회사, 썬하롱 유한회사, 썬시티 유한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투자자로 선정됨

② (베트남) 하노이시 동아잉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하노이시 인민위원회
- (사 업 비) VND 60.5조 (USD 23.3억)
- (사업내용) 총 면적 696ha(3개 구역), 계획 인구 약 20만명
- (추진계획) '26.2. 착공 / '29.3Q. 완공 예정

- (주요사항) 본 사업은 하노이시가 추진하는 다목적 도시개발 모델의 시범사업 1호로 주거 공급 중심의 기존 신도시 방식에서 벗어나, 주거·상업·고용·공공서비스 기능을 통합한 자족형 복합도시 조성 예정